

# 주점·노래연습장 영업시간 제한

### 도, 오는 23일까지 밤 11시부터 영업 금지 조치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배소송 청구”

유형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 시간이 오는 23일까지 밤 11시 까지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형주점이나 단란주점 이용자들이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고, 동선을 공개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꺼리면서 가족과 직장 등 일상 생활을 고리로 한 연쇄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설명했다. 최근 도내에서는 제주시 한 유형업소 종사자와 이용객 등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에 따라 도내 퓌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형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종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된다. 제주지역에서는 유형업소 776곳, 단란주점 582곳, 노래연습장 318곳이 운영되고 있다.

도는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운영자에 대해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위반 정도가 심하고 집단감염 원인이 됐다고 판단될 경우 방역

과 확진자 진료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도내에서 4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을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정해 방역 수칙 위반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철저한 환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제주중앙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10일부터 14일까지 원격수업을 하기로 했다. 특히 1학년의 원격수업 기간을 1주일 더 연장해 21일까지 실시한다.



해녀와 함께하는 프리마켓 8일 해녀와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프리마켓이 열린 서귀포시 법환동 해녀물질체형장에 도민과 관광객들이 찾아 쇼핑을 즐기고 있다.

# “당일 통보 황당” vs “불가피한 조치”

### 도내 주점업계 ‘영업 제한조치’에 불만 표출 도 “코로나 확산세 꺾기위해 어쩔수 없었다”

제주도가 유형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한 것과 관련 해당 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막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통보는 당일이라 이뤄지는 등 영업 제한을 준비할 새도 없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조치 해당 업소는 1676개소에 달한다. 문제는 다른 업종에 비해 영업 제한 조치가 자주 이뤄지는 상황에서

통보마저도 당일에서야 진행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시 이도2동에서 유형주점을 운영하는 A(53·여)씨는 “수차례 영업제한을 버티 뒤 최근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1년치 임대료도 최근 납부했다. 영업 제한이 또 시작된다는 소식을 9일에야 접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제주시 노형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B(59·여)씨는 “그동안 영

업 제한 소식은 시행 3-4일 전 협회에서 공지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가게를 방문한 손님을 통해 듣게 됐다”며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은 이해하지만,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은 점은 아쉽다. 향후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7일부터 위생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영업 제한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반발하는 의견이 많아 결정이 다소 늦어졌다”며 “업주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고 싶었지만 지금이 아니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 “바다는 후손에 물려줘야 할 공동재산” 제주시통장협의회 7일 일본영사관 앞서 기자회견

제주시 통장협의회는 7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주재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양 방류 결정은 제주도민의 삶의 터전인 청정 제주바다를 오염시키고 국민안전에 위협하는 행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인류

의 공동재산인 바다를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 이어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접 국가들의 동의도 없이 방사는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일본정부는 방사는 오염수 처리 방식을 독단적으로 결정해선 안되며 반드시 인접국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행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외제차 수출사기 주범 등 12명 검거 경찰, 대포차 판매업체 등으로 수사 확대

해외로 수출할 외제차를 대신 구입 해주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외제차 수출 사기 사건의 주범과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주범 A(48)씨와 모 집책 B(49)씨, 무역회사 대표 C(24)씨, 대포차 판매업자 D(32)씨

등을 각각 사기와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 총 12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 120여명에게 캐피탈 업체를 통해 할부로 고급 외제차를 사주면 1대당 20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뒤 외제차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새차가 아닌 중고차로 외제차를 수출하면 관세 등 감경 혜택을 받는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체 피해 금액은 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200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는 거의 없으며, 피해 차량은 대부분 대포차로 거래돼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차량 딜러와 대포차 판매업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지인 딸 강제추행 50대 법정구속

지인이 보는 앞에서 지인의 딸을 강제추행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소재 길거리에서 지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지인의 딸)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

한 뒤 팔뚝을 잡아 당겨 겨냥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 A씨는 주점 룸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졌으며, 이를 본 피해자의 아버지가 제지하자 맥주컵과 술병을 TV장식장에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인의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 추행했다. 특히 피해자 아버지의 제지에도 추행행위를 계속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행패까지 부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 통화하다 차량 바다 추락

20대 남성이 만취상태에서 포구에 차를 세워놓고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5분쯤 제주 삼양3동 포구에서 운전자 A(26)씨가 탑승한 소나타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오전 6시29분쯤 자력으로 탈출한 A씨를 발견해 119구급대에 인계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지인 B씨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으며 지인 B씨는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는 소리가 들리며 차량이 바다로 빠지는 영상을 보고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질하던 80대 해녀 숨져 해변에서 우뚝가사리를 채취하던 80대 해녀가 심정지로 숨졌다.

8일 제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7분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해변에서 A(81)씨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숨졌다.

##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을·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해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용량 : 20kg

말뚝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영양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향상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약소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 Tel: 745-8900, HP: 010-9258-7508

#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 생각만해도 머리 아픈 돈, 돈! 최선으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 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25-9001